경제혁신 3개년 계획 "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."
대한민국 재도약의 힘, 창조경제
경 제 혁 신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산업통상자원부

보도자료

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6. 10. 30(日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/투자유치과
담당과장	조수정 과장(044-203-5690) 김재준 과장(044-203-4080)	담 당 자	박근형 사무관(044-203-5692) 류종민 사무관(044-203-4089)

한·일·중 경제통상장관회의 계기 양자 회담 개최 결과

-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 연내 추진키로 합의 -

-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이행 점검 및 산업협력단지 등 정상간 합의 성과사업 점검 -

- 도쿄, 나고야, 오사카 경제권의 주요 기업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-

□ **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10. 29.(토)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11회 한·일·중 경제·통상장관회의 참석 계기, **세코우 히로시게(世耕 弘成) 일본 경제산업대신** 및 **가오 후청(高 虎城) 중국 상무부장**과 각각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경제·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.

○ **(일본)** 양국 장관은 한일 **산업통상장관회의의 연내 개최에 합의**하고, 이를 위한 구체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- 또한, **한중일 자유무역협정(FTA)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** 협상이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합의했다.

- 아울러, △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협력, △액화천연가스(LNG)* 등 에너지 협력, △제3국 공동진출 등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

* 액화천연가스 수입 세계 1위(일본), 2위(한국)인 양국이 협력하여 **도착지 제한, 의무인수**(take or pay) **등** 구매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키로 함.

○ **(중국)** 양국 장관은 **교역·투자 협력**, 한중 자유무역협정(FTA) **이행** 현황을 점검하고, 화장품·농수산품 등 양자 통상현안에 대해서도 실무협의를 지속키로 했다.

- 아울러, △한중 산업협력단지, △제3국 공동 진출, △한중 투자협력기금 등 작년 한중 정상회담 성과사업 후속조치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.

□ 아울러 주 장관은 도쿄, 나고야, 오사카 등 **일본 주요 경제권**의 대표적인 **유망 투자기업***을 만나 대한(對韓) **투자확대방안**을 **심층 논의했다.**

* 오카야(종합상사), 니폰일렉트릭 글래스(전기전자), 나이스(NICE: 건축), 아마다(기계) 등

○ 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대한투자 추세를 지적하며, "**한일 협력관계가 향상** 되고 있는 바로 지금이 **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.**"라고 강조했다.

○ 또한, **양국 정부는 한일 기업간 투자협력을 확대**할 수 있도록 필요한 **제도적 틀을 지속적으로 보완**해 나가고 있음을 밝히며, **양국 기업이** 이러한 협력의 **제도적 틀을 적극 활용**해 나가는 것이 **경제협력의 핵심임을** 언급했다.

○ 특히, **나고야 상공회의소 회장직**을 맡고 있는 오카야 강기사(社)의 **오카야 토쿠이치 사장**에게는 자동차, 전기전자, 항공, 로봇분야의 나고야 소재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간의 **투자협력이 한층 더 발전**될 수 있도록 **적극적인 역할**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.

○ 이에 대해 오카야 사장은 한일 기업간 투자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에 공감하고, **나고야 지역에 한국투자 설명회 개최**를 요청하였으며 주 장관도 **빠른 시일 내에 추진**하겠다고 화답했다.

□ 참석 일본기업들은 **한국기업**과 오랜기간 투자협력을 통해 **신뢰관계를 구축**해 온 점을 언급하며, 사물인터넷(IoT), 인공지능(AI), 자율주행, 바이오 등 **신산업 분야 육성**과 석유화학, 철강, 조선분야의 **사업재편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**이 **새로운 투자기회를 창출**해 낼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.

○ 또한, **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** 규제완화,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등 **정책적 노력을 높이 평가**하며, 한국의 뛰어난 정보기술(IT) 기술기반, 자유무역협정(FTA) 플랫폼, 유리한 입지, 그리고 기술력이 뛰어난 인적자원 등을 투자매력요인으로 꼽는 등 **향후 대한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**임을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조수정 과장(☎ 044-203-5690) 또는 박근형 사무관(☎ 044-203-56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